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오피니언: 연준, 연착륙 가능성도 열어두라
- WSJ: 연방 차입 비용 올라... 양당 간에 충돌

[미국 금융]

- CNN Business: 올해 자사주 매입 규모는 작년 1조2억불 초과 가능성

[뉴저지]

- BergenNews: H 마트, 다음주에 리틀페리에 새로 오픈

[COVID 19]

- CNBC: 5월 11일에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된다

[미중 무역]

- WSJ: 미국, 중국에 대한 기술 통제 고삐 더 죄다

[러시아 오일]

- WSJ: 러시아 오일 생산량 줄인다... 가격 상승 신호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의류 기업들, 소매업체들에 의존해 재고 처리
- Bloomberg: 스페이스X, 인공위성 인터넷 사업으로 올해 수익 기대
- Bloomberg: AMC, 영화관 좋은 좌석에 높은 요금 부과
- TechCrunch: 우버, 애플의 CarPlay와 자체 우버 운전자 앱 통합한다
- CNN Business: 코카콜라, 가수 Rosalía와 새로운 음료 콜라보
- WSJ: 바이오테크 업계 연이어 문 닫고 정리하고...U턴 흐름 밟나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오피니언: The Fed Now Has a Good Chance at a Soft Economic Landing ... by Alan S. Blinder,
연준, 연착륙 가능성도 열어두라

- 요지: 인플레이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연준의 매파가 성급할 경우(‘계속적인 금리 인상 입장’) 침체 나락으로 갈수 있다.
- 최근 연준이 이구동성으로 ‘계속적인 금리 인상’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인플레이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인플레이가 다소 완화됐다”는 너무 겸손한 표현일 수도 있다.
- CPI는 지난해 상반기 연율로 11.1%에서 하반기에 1.9%로 떨어졌다. 2% 미만 수치도 바뀌었다. 더욱이 연준이 선호하는 수치인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인플레이도 작년 상반기 8%에서 하반기에 2.1%로 감소했다. 놀랄 만하게 개선된 수치다. 근원 PCE 인플레이도 같은 기간 5.2%에서 3.7%로 감소했다.

- 나의 희망사항은 연준이 2월 22일 발표하게 되는 의사록에서는 지난 2월 1일의 전원일치 합의 의견(계속적인 금리 인상 필요)보다는 서로 내부 논쟁적인 의견이 나왔으면 한다. 이미 일부 참석자들이 현재 금리를 충분히 올렸기에 이제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어야 했다.
- 연준의 주 임무는 경기 침체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꺾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꺾으려면 침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단지 필립 곡선 이론일 뿐이다.
- 현재 인플레이션은 둔화하고, 오르지 않고 있다. 임금 상승세도 둔화하고 있다. 앞으로는 임대료 인플레이션도 낮아질 것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연준이 긴축적으로 대응하는 효과는 시간이 걸리고 있다. 아마도 경제를 죽이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도 있다.
- 나는 예전에 소프트랜딩 가능성이 없다는 강한 입장이었다. 현재는 50% 대 50%다. 연착륙 가능성이 있다면 연준도 그쪽으로 애를 써야 하지 않을까?
- Alan S. Blinder, 프린스턴대 경제학 교수, 연준 부의장 역임(1994~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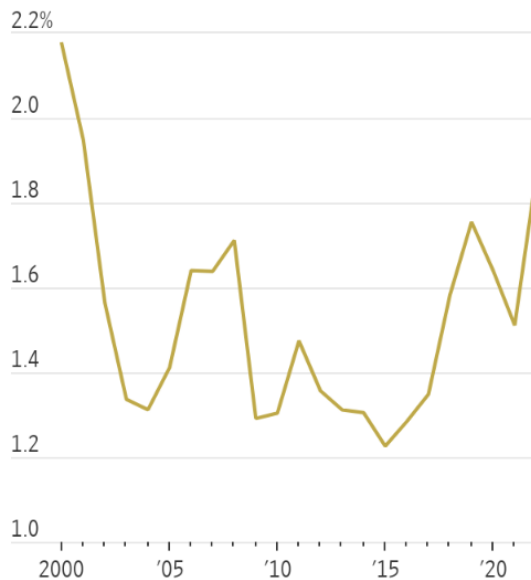
WSJ 기사

WSJ: U.S. Government Borrowing Costs Rise as Debt Ceiling Fuels Partisan Clash

연방 차입 비용 올라... 양당 간에 충돌

- 워싱턴 DC에서 낮은 연방 부채의 시대는 끝났다. 왜냐하면 더 높은 차입 비용 때문에 연방 부채가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당 간에 i) 부채 한도 인상과 ii) 얼마나 많은 차입 규모가 지나친 건지에 대한 갈등이 커지기 때문이다.
- 연방의회실이 연방 지출 추세를 올해 1월까지 조사한 결과, 재무부가 연방 부채에 대해 지불하는 이자 비용은 올해 회계연도 첫 4개월(2022년 10월~올해 1월)에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41% 늘어난 1천9백80억불로 나타났다. 전년도 같은 기간은 1천4백억불.
- 이처럼 이자 비용이 늘어난 것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통제와 경제 둔화를 목적으로 기준금리를 빨리 올린 탓이다. 팬데믹 기간동안 거의 2년 동안에는 금리가 거의 제로였는데 크게 오른 것이다.
- 공화당은, 이런 상황에서 연방 정부 지출 감소와 적자 감소를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정부 차입 비용은 경제 규모에 비해 감당할 수 있으며 연방 지출 축소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Interest costs as a percentage of GDP



Sourc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via St. Louis Fed

WSJ 기사

[미국 금융]

CNN Business: Stock buybacks could beat last year's record \$1.2 trillion 올해 자사주 매입 규모는 작년 1조2억불 초과 가능성

- 기업들은 현재까지 부진한 실적 시즌에 자사주를 재매입하고 주주들 배당금을 늘리고 있어 올해의 경우 작년의 전체 자사주 매입 규모 1조 2억 2천 불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1천 7백 50억 달러 자사주 매입을 밝혔다. 현재 속도는 작년의 속도보다 두배 빠른 매입 속도다.
- 이에 대한 비판자들은 돈많은 경영자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회사 수입을 자신들의 호주머니로 넣기 때문에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 금지함으로써 회사 성장과 임금 인상, 회사 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바이든은 연두교서에서 현재 자사주 매입 세금 1%를 4배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 반면에 회사들은 초과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 또는 배분하게 되고, 주식시장의 유동성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CNN Business 기사

[뉴저지]

BergenNews: H Mart at American Dream mall will finally open this month H 마트, 다음주에 리틀페리에 새로 오픈

- 그동안 오픈을 발표했지만 개장이 늦어진 H 마트의 뉴저지 리틀페리 매장이 이달 17일 오전 11시에 오픈하게 된다.
- 매장 크기는 3만5천6백70 스퀘어 피트, 특히 푸드 홀이 있어 여러가지 아시안 요리들을 제공하는 식당이나 분점들도 선보이게 된다.

BergenNews 기사

[COVID 19]

CNBC: The Covid emergency in the U.S. ends May 11. HHS officials say here's what to expect

5월 11일에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된다

- 연방보건부장관은 어제 목요일 주지사들에게 통보했다. 3년동안 지속되어 온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마지막으로 한차례 더 갱신되지만 최종적으로 5월 11일에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렇게 되면 코비드 테스트 비용은 개인 의료보험에서 내야 하며, 메디케어 파트 B 노인들은 오버더카운터 테스트에 돈을 지불해야 한다.
- 물론 현재 연방 정부 재고가 바닥날 때까지는 Paxlovid 등 치료제는 보험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이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CNBC 기사

[미중 무역]

WSJ: U.S. Poised to Further Tighten Technology Exports to China After Balloon Incident

미국, 중국에 대한 기술 통제 고삐 더 죄다

- 스파이 풍선 사건 이후에 미국은 중국이 군사적인, 경제적인 파워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품목 접근을 제한하게 된다. 그 만큼 중국은 서구에 대한 기술 접근이 금지된다. 첩보 센서를 갖춘, 추락당한 중국의 스파이 풍선 때문이다.
- 풍선 사건과 연계된 6개의 중국정부 지원 기업들을 연방 상무부의 블랙 리스트 기업에 추가시킬 예정이다.

WSJ 기사

[러시아 오일]

WSJ: Russia to Cut Oil Production, Sending Prices Higher

러시아 오일 생산량 줄인다... 가격 상승 신호

- 러시아는 3월에 오일 생산 규모를 5%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서구의 석유 시장 제재에 대한 대응책으로 공급을 줄이겠다는 위협의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 이에 따라 국제 유가는 올랐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생산량 감축이 위협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구의 제재로 러시아의 석유 판매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것이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Clothing Companies Lean on Retailers to Help Ease Inventory Glut 의류 기업들, 소매업체들에 의존해 재고 처리

- Under Armour, Ralph Lauren과 같은 대형 의류 업체들이 작년부터 이어진 재고 과잉과 소비자 지출 감소로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소매업체들에게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재고 처리를 의존하고 있다.
- Macy's Inc.와 Nordstrom Inc. 등의 백화점 브랜드들도 새로운 온라인 브랜드의 등장과 패스트 패션의 지배 속에서 급격한 수요 변화에 대비한 재고 관리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 한편 팬데믹 초기에는 많은 의류 업체들이 늘어난 배송 시간과 강력한 소비자 수요 속에 품질 사태를 피하고자 더 많은 재고를 확보했었다. 하지만 12월 소매 지출이 2022년 기간 중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며 현재는 재고 수준을 낮추기 위해 애쓰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SpaceX President Says Satellite-Internet Business Expected to Make Money This Year 스페이스X, 인공위성 인터넷 사업으로 올해 수익 기대

- 스페이스X의 Gwynne Shotwell 책임자가 NASA와 협력해 발사한 로켓, 인공위성을 사용한 초고속 광대역 인터넷을 제공하는 스타링크 등 회사의 주요 사업군이 올해도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스타링크는 현재 1백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 스페이스X는 별도로 재무제표나 운영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앞서 WSJ는 회사 내부 문서를 검토해 스페이스X가 2013~2014년에 적게나마 영업 이익을 만들었지만 2015년에 한 화물 로켓이 폭발하면서 손실을 봤다고 보도한 바 있다.
- 한편 NASA의 우주 비행사들을 달에 착륙 시키고, 화성 탐사를 시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스페이스X의 '스타쉽' 우주선은 이번주 목요일 지상 시험 가동에서 주요 엔진 33개 중 31개의 가동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AMC Will Charge More for the Best Seats in Its Movie Theaters

AMC, 영화관 좋은 좌석에 높은 요금 부과

- 세계 최대 극장 체인인 AMC가 좌석 위치에 기반한 차등 가격 구조를 시행할 예정이다. 일반 좌석의 가격은 그대로이며, 맨 앞줄은 더 싸지고, 관람객들이 선호하는 중앙 좌석은 더 비싸진다.
- 이 구조는 오후 4시 이후의 영화에만 적용되며, 올해 말까지 모든 AMC 극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발표했다.
- 한편 여전히 팬데믹 이전에 비해 박스오피스의 매출이 3분의 1가량 낮은 상황에서, AMC가 업계 관례에서 벗어나겠다고 발표한 데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TechCrunch: Uber is integrating its driver app with Apple CarPlay

우버, 애플의 CarPlay와 자체 우버 운전자 앱 통합한다

- 우버가 애플의 CarPlay와 자체 운전자 앱을 통합하면서 아이폰을 가진 우버 운전자들이 애플의 CarPlay를 사용하는 동안 자동차 대시보드에서 직접 우버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는 미국 전역의 우버 운전자들에게 배포되고 있으며, 모든 운전자가 이달 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 CarPlay는 자동차의 대시보드 및 헤드 유닛과 ios 기기를 연결시키는 애플의 어플로, 이번 통합은 우버 운전자들이 더 이상 운전을 하면서 휴대폰 화면을 넘길 필요가 없게 되었다. 또 더 큰 화면으로 우버 네비게이션을 볼 수 있다.

TechCrunch 기사

CNN Business: Coca-Cola partners with Rosalía on new drink

코카콜라, 가수 Rosalía와 새로운 음료 콜라보

- 코카콜라가 그래미상을 수상한 가수 Rosalía와 콜라보로 새로운 한정판 음료 “코카콜라 무브(Coca-Cola Move)”를 출시한다. 2월 20일부터 미국과 캐나다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 코카콜라 측은 새로운 음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맛인지 공유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다. 기자는 새 음료의 무설탕 버전이 버터 카라멜 향 팝콘 맛 콜라 같았다고 덧붙였다.

- 코카콜라는 한정판 제품을 화제를 모으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Coca-Cola Move의 캔에는 비하인드 콘텐츠로 연결해주는 QR코드, 3D 아바타와 관련된 플레이리스트 등이 새겨져 있고, Rosalía는 새 음료와 어울리는 싱글 음반과 비디오를 발표할 예정이다.



The Coca-Cola Company

CNN Business 기사

WSJ: Layoffs and Shutdowns Hit Biotech Industry in U-Turn 바이오테크 업계 연이어 문 닫고 정리하고...U턴 흐름 밟나

- 지난 10년간 넘쳐나는 자금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대감으로 번창했던 바이오테크 업계가 최근 몇 달 동안 수천 명의 직원들을 해고하고, 일부는 문을 닫기까지 하면서 U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Finch Therapeutics Group Inc.는 신약 개발을 중단하고 직원의 95%를 해고한다고 발표했고, Goldfinch Bio Inc.는 자금 조달에 실패해 폐업 수순을 밟았다. Vyant Bio Inc. Cyteir Therapeutics Inc. 등의 상황도 마찬가지. 올 해만 19개의 바이오테크가 감원 계획을 발표했다.
- 투자자들은 알츠하이머 치료제 등 유망한 신약의 개발 소식에 흥분해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주식을 사들였으나, 점차 고금리 속에 더 안전한 투자 분야를 찾아 떠나버렸다. 이에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더 이상 연구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WSJ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경제, 침체 대신 경기반등도 가능...고용 호황·집값 안정"

이 경우 기준금리 어디까지 올릴지가 연준의 과제

올해 미국 경기후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침체 대신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뉴욕타임스(NY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노동시장이 호황인데다 주택시장도 안정세를 보여 그간 나온 경기후퇴 예측을 재고하는 시각이 생겼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제로 금리 시대를 끝내고 네 차례 연속 금리를 0.75%포인트씩 올리는 등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왔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